

국민성장펀드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는 강원도에서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개최
(2.11~12. 중부·서남권, 2.26~27. 대경·동남권, 4.3. 강원권)
 - 강원도 에너지인프라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 ①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등 안내
- ② (창업동아리 간담회) 지역 소재 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논의

【관련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 신설)

1.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지방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방문은 지난 2.11~12일 금융위원장의 중부·서남권, 금융위 부위원장의 2.26~27일 대경·동남권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강원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우대금융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내 투자계획을 청취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강원도 지역간담회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원회는 강원도가 태양광, 풍력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AI 인프라·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가 강원도 지역의 성장 기반과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전체 150조원+@의 조성액 중 40%인 60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인 만큼, 강원도 소재 첨단전략산업 관련 지역기업들도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3. 강원대 창업동아리 간담회 주요내용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강원대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민구 학생은 “강화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사막 지역 이동식 식품 판매 트럭을 창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캐피탈을 만날 기회가 적어 초기 창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IR기회 확대 및 보육프로그램 확충 등 초기·혁신 분야에 대한 마중물 투자와 초기 창업자금 확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	책임자	과 장	최윤석 (02-2224-2030)
		담당자	사무관	강성혜 (02-2224-20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86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책임자	국 장	김정구 (02-787-5001)
		담당자	팀 장	이 정 (02-787-5002)